future play

https://futureplay.co

퓨처플레이 ESG 스터디 노트

스타트업 산업에서의 ESG 현황 및 사례

Jul.2021

Table of Contents

1_ Prologue 3p

2 _ ESG 정의 4p

3 _ ESG 현황 11p

4 _ ESG 투자 사례 30p

5 _ Epilogue 43p

Disclaimer

본 보고서는 퓨처플레이의 리서치를 바탕으로 수합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보고서의 내용은 정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퓨처플레이 내부 검토만을 진행하였기 때문에,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본 보고서의 내용을 배포, 복제, 전송, 발간, 인용하기 위해서는 퓨처플레이의 사전 동의가 필요합니다.

Prologue 퓨처플레이가 ESG를 보는 이유

매크로적인 시장 흐름을 파악한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매우 쉬운 일이면서 매우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거대한 흐름에 거스르는 선택을 하는 것은 엄청난 손실과 불이익을 불러온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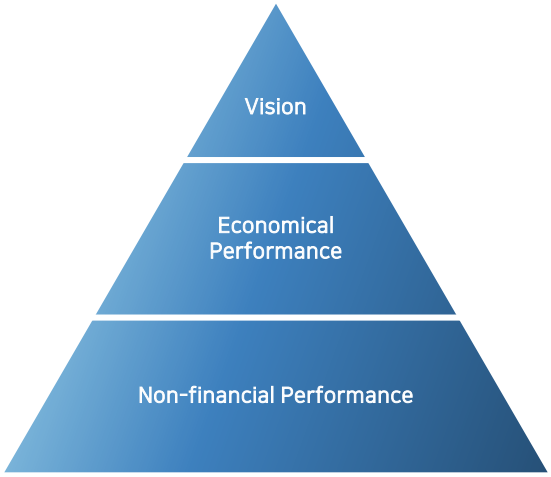
코닥(Kodak)의 경우, 1990년대까지 필름 업계 1위로서 디지털카메라의 파급력에 대해 안일하게 대응하였습니다. 코닥은 1위라는 자리에 안주하여, 빠른 시장 수요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며 결국 2012년 파산 신청을 하였습니다. 반대로 후지필름(Fuji Film)의 사례를 통해 변화에 빠르게 대응할 경우, 생존을 넘어서 고속 성장할 수 있다는 점도 배울 수 있습니다. 후지필름은 전통적인 필름 산업의 몰락을 예견하고 발 빠르게 신사업에 진출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이를 통해 의료, 화장품, 검사장비, 복사기, LCD 패널 소재 등으로 사업을 다각화하며 매출의 99%를 신사업에서 달성해내게 되었습니다. 현시점에서 후지필름의 기업 가치는 44조 원 가량을 기록하고 있으며, 이는 한때 필름 업계 리더이자, 후지필름의 가장 큰 경쟁사였던 코닥의 60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10년 뒤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하고 사업을 만드는 퓨처플레이 입장에서는 우리 삶에 스며드는 거시적인 흐름이 무엇이며 또 언제 그 임팩트가 발휘되는지에 대해 선제적으로 공부하고 고민하는 것이 특히 중요합니다. 코닥과 같은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 후지필름과 같은 미래지향적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퓨처플레이는 다양한 사회 현상을 스터디하고, 거시적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 많이 대두되고 있는 ESG라는 키워드에 관해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유튜브, TV 뉴스, 버스 광고 등에서 매일 접하고 있는 ESG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어떠한 부분들에 대해 고민해야 하는지, 어떤 기회들이 있는지, 어떠한 미래를 그려야 하고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생각하며 이 리포트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퓨처플레이답게 스타트업의 관점과 스타트업 투자사의 관점에서 ESG의 무엇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등의 고민의 기반이 되는 '스터디 노트'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ESG 정의

ESG는 지속 가능한 경영을 위한 핵심 요소인 Environment(환경), Social(사회), Governance(지배구조)를 이르는 말입니다. 환경/사회/지배구조는 기업의 경영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그 어떤 기업도 이와 관련된 문제를 피해갈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기업들은 지속 가능한 환경/사회/거버넌스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ESG를 도입하고자 하는 목적은 1) 비전, 2) 경제적 성과, 3) 비재무적 성과로 나누어볼 수 있습니다. ESG라는 단어가 처음 사용된 곳은 UN Global Compact의 "Who Cares Wins"라는 보고서*였습니다. 보고서에서는 금융 기관, 기업, 투자자, 정부와 관계기관, 컨설턴트와 분석가, 주식 거래 등 시장 내 다양한 플레이어들에게 '지속 가능성'이라는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같은 비전을 가진 기업 및 기관들과 논의를 하고, 자금을 모으는 등 활발한 움직임으로 이어졌습니다.

ESG의 '지속 가능성'이라는 비전은, 다양한 성과 측정 방법을 통해 경제적인 성과로 측정됩니다. 이러한 정부와 기업에서는 **경제적 성과**를 위해 다양한 사업과 기술을 개발하기도 합니다. 한편, 비전에 공감한 주체들이 다양한 사업과 기술을 개발하며 **비재무적인 경영 성과**를 내고, 이에 대한 성과 측정과 투자 및 M&A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이처럼, ESG에 동참하는 주체들이 다양한 목적으로 유기적인 관계를 맺으며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ESG의 각 요소는,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를 의미할까요?

* <Who Cares Wins 2005 Conference Report: Investing for Long-Term Value>, IFC, Oct 2015

1

Environment

기업은 비즈니스 운영 과정에서, 혹은 밸류체인 전반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 문제를 고려해야 합니다. 영화 킹스맨 1편이 기억나시나요? 사무엘.L.잭슨이 연기한 리치몬드 발렌타인은 이런 말을 합니다.

" Mankind is Virus "

(출처: Kingsman: The Secret Service)

그는 지금과 같이 인구가 지구에서 살아간다면, 환경 오염으로 인해 곧 인류가 멸망하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상류층만이 자연의 이익을 누리기 위해(혹은 자연이 불러올 해악을 피하고자), 폭력적인 방법으로 인구수를 조정합니다.

물론 발렌타인이 선택한 해결책에는 공감이 되지 않으나, 그의 문제의식은 충분히 귀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기업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는 전반적으로 환경 문제의 심각성을 피부로 와 닿게 느끼고 있습니다. ESG 중에서 Environment가 시사하는 점은, 지구의 관점에서 기업이 더 이상 'virus'로 여겨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Blackrock*이 정리한 환경 이슈는 다음과 같습니다.

* "Exploring ESG: <A practitioner's perspective>", Blackrock, 2016

온실가스 배출	에너지 관리	생물 다양성 영향
공기 질	용수 및 폐수 관리	연료 관리
폐기물 관리	유해물질 관리	

글로벌 주요 기업에서는 ESG 중 '환경'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했습니다.

기업	개념
S&P Global	직접적인 운영이나 공급 체인 전반에서, 천연 자원을 활용하는 것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는 것을 의미함. 즉, 이해관계자와 주주 모두에게 위험과 기회가 될 문제(환경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 탄소 배출 감소 등)를 다루어야 함. * S&P Global (23 Oct, 2019)
Cinven	기업에 잠재적인 위협이 되는 천연 자원의 고갈, 기후 변화 등을 해결하기 위한 지속 가능한 투자 옵션을 의미함. * Civen (Oct, 2018)
Mckinsey	회사가 사용하는 에너지와 자원, 배출하는 폐기물, 그리고 결과적으로 생명체에 미치는 영향을 의미함. 모든 회사는 에너지와 자원을 사용하고, 탄소배출이나 기후변화 등의 형태로 환경에 영향을 미치고 영향을 받음. * Mckinsey & Company (14 Nov, 2019)
Blackrock	기후 변화, 천연 자원 부족, 환경 오염과 폐기물, 그리고 환경적인 기회에 대한 주제를 포함함. * Blackrock

2

Social

기업은 물적 자원(Material resource)과 인적 자원(Human resource)을 바탕으로 경영합니다. 이 중에서 Social 요소는 인적 자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기업 안팎에 있는 직원, 파트너, 고객 등의 사람들과 공정하고 포용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세대가 변화함에 따라 인적 자원을 대하는 경영에도 변화가 필요합니다. 직원에게 체제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직원 개개인의 개성과 역량이 잘 융화되도록 돕는 조직이 필요합니다. 지난 20년 8월 구인구직 매칭 플랫폼 사람인의 조사 결과, MZ세대는 조직보다는 개인의 이익을 우선시하고, 개인의 삶이 보장받는 근무 환경을 중시합니다. 이러한 세대 특성을 고려했을 때, 긍정적인 노사 관계를 위한 노력은 필수적입니다.

소비자와 공정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 역시 필수적입니다. 지금까지 암암리에 이루어졌던 소비자 기만적인 경영은 초연결사회가 되며 수면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국내외 여러 기업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 소비자가 등을 돌린 기업은 회생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기업과 소비자가 가진 정보의 불평등을 해소 등, 공정한 경영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Blackrock에서 정리한 구체적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인권 및 지역사회 관계	접근성 및 부담 능력	고객 복지
데이터 안전성 및 고객 프라이버시	공정한 공시 및 라벨링	공정한 마케팅 및 광고

글로벌 주요 기업에서는 ESG 중 '사회'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했습니다.

기업	개념
S&P Global	노동력과, 사회 및 정치와의 관계를 관리하는 것을 의미함. 주로 노사 문제, 기업과 외부 기관 간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다루며, 기업이 사회적 쟁점과 노동력, 정치를 다루는 데 있어서의 강점 혹은 약점을 의미하기도 함. * S&P Global (23 Oct, 2019)
Cinven	기업이 직원, 지역 사회, 사회에 미친 영향을 의미함. 포용과 다양성, 평등은 기업의 운영에 있어서 점점 더 중요한 이슈가 되어가고 있으며, 이를 통해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만들어낼 수 있음. * Civen (Oct, 2018)
Mckinsey	기업이 보유한 관계와, 기업의 커뮤니티(노동력, 기관 등)에서의 신망(평판) 관리를 의미함. 노사 관계, 다양성, 포용성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며, 모든 회사는 넓고 다양한 사회에서 운영되기 때문에 중요한 요소임. * Mckinsey & Company (14 Nov, 2019)
Blackrock	노동력 문제와 제품에 대한 신뢰도, 정보 보안과 이해관계자 대응 등의 리스크를 다루는 것을 의미함. * Blackrock

3

Governance

일반적으로 Governance라고 하면 '협의체', '의사결정 구조', '네트워크'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아직 학술적인 정의가 내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다소 개념이 혼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글에서 집중하고 있는 ESG에서의 Governance는 'Corporate Governance(기업 거버넌스)'입니다. 즉 기업 내의 의사결정 과정과 이를 위한 여러 협의체, 그리고 기업 내 개인의 권한과 책임에 대한 것을 다룹니다. Blackrock에서는 관련 이슈를 다음과 같이 정리했습니다.

노사 관계	라이프스타일 변화	자산(운영)에 미치는 영향
공정한 노동 행위	사업 모델 및 혁신	제품 포장
종업원 안전 및 복지	채용, 능력 개발, 고용 유지	제품 안전성 및 품질
다양성 및 포용성	보상 및 혜택	리더십 및 지배구조
위험관리 시스템	경쟁적 행태	규제 및 정책적 영향
사고 및 안전 관리	기업 윤리 및 지출의 투명성	자원 소싱
공급 사슬 관리		

왜 거버넌스가 중요할까요?

거버넌스는 기업의 '사회적인 경영성과'와 관련이 깊습니다. 연구* 결과, 사회적으로 나쁜 영향력을 미치는 기업이 거버넌스를 개선(공공부문 위원회, 사회적 책임 위원회 설치 등)할 경우, 해당 기업의 경영이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방향으로 변화했습니다. 이처럼 거버넌스를 고려할 경우, 단순히 기업 내부적으로 개선되는 것이 아니라, 의사결정 방식 등의 변화를 통해 기업 외부적으로도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글로벌 주요 기업에서는 ESG 중 '거버넌스'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했습니다. 앞서 소개한 거버넌스 관련 요인에 대한 설명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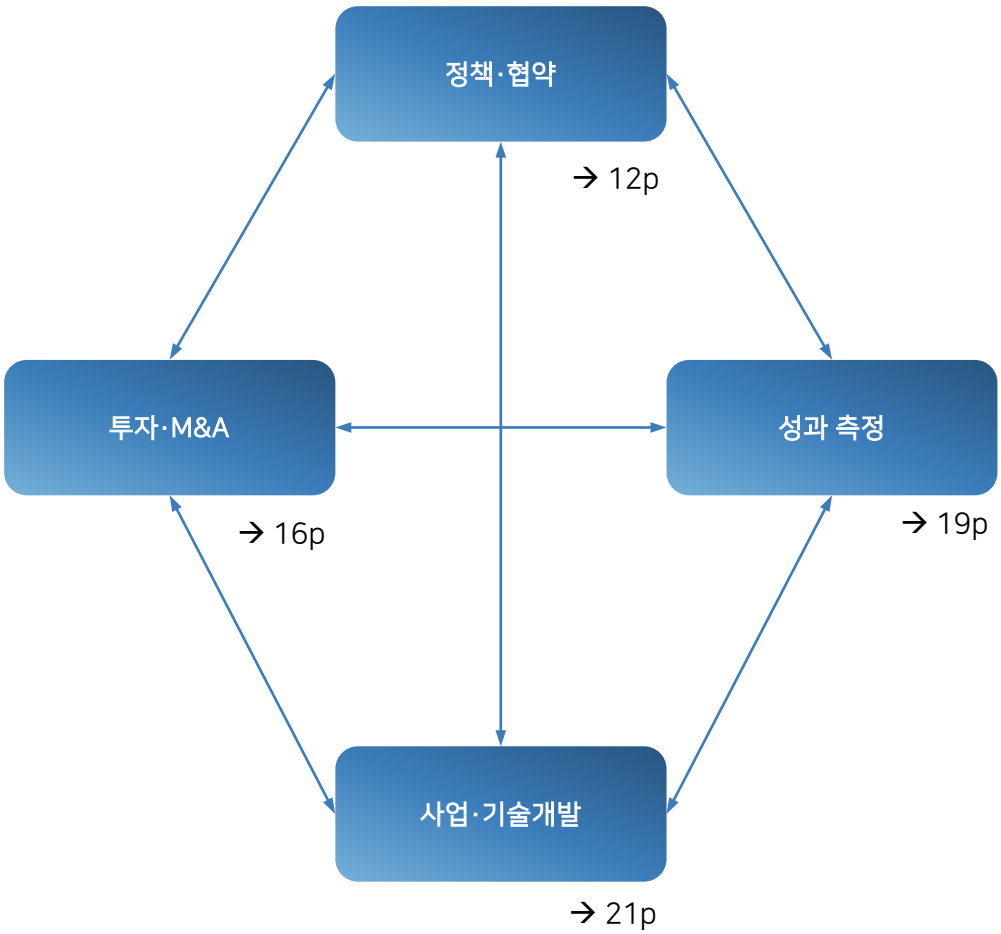
기업	개념
S&P Global	기업의 지배구조와 관련된 핵심 이슈를 의미함. 이를테면, 이사회, 경영자, 주주, 이해관계자 등 기업 내 다양한 참여자들의 권리 및 책임 배분부터 주권자의 의사결정, 법인의 목적 수립, 이사회의 역할 및 구성, 최고 경영진에 대한 보상 및 감독 등의 이슈를 포함함. * S&P Global (23 Oct, 2019)
Cinven	기업의 구조, 기업 가치 및 책임 프로세스 등 경영진의 권리와 책임을 포괄하는 개념임. * Civen (Oct, 2018)
Mckinsey	기업이 스스로를 통제하고, 효과적인 결정을 내리고, 법률을 준수하며, 외부 이해관계자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채택하는 내부 관행, 통제 및 절차 시스템을 의미함. 모든 기업은 그 자체가 법적으로 생겨난 조직이기 때문에 거버넌스를 필요로 함. * Mckinsey & Company (14 Nov, 2019)
Blackrock	기업의 이사회의 역량과 효율성 등 거버넌스와 조직 행동을 의미함. * Blackrock

* 문정빈, <미국 주요 기업들에서 관찰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기업지배구조>, IASR, 16(1), 29-52, 2012

ESG 현황

- Sector -

ESG 관련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활발하게 1)**정책·수립**, 2)**투자 및 M&A**, 3)**성과 측정**, 4)**기술·사업 개발**을 합니다. 이들은 각각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긴밀한 유기적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1

정책 · 협약

정책과 협약을 통해 ESG 관련 글로벌 비전을 수립하거나, ESG 측면에서 좋은 성과를 내는 기업에 대해 보상을 하거나, 그렇지 않은 기업에 대한 페널티 부과합니다. 이외에도 생태계가 원활히 돌아갈 수 있도록 크고 작은 규칙을 마련합니다. 작게는 기관 단위에서, 혹은 범국가적인 정책, 나아가 국가 간 협약까지, 포함되는 주체는 다양합니다.

연	월	사건
1972		**[UNEP(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설립]** 스톡홀름에서 개최된 '인간환경선언' 결의에 의해, 세계 각국 정상이 지구 환경 문제를 다루기 위한 UN 전문기구를 만들어야 한다는 데 합의하여 설립함.
1987		**[브룬트란트 보고서]** WCED(World Commission for Environment and Development)에서 발간된 '우리 공동의 미래(Our Common Future)'란 제목의 보고서로, 지속 가능한 개발을 장기적이고 범지구적인 의제로 공식화함.
1992	6	**[리우 회의]** 1990년부터 UN총회의 다섯 차례 회의를 통해 기후변화협약 초안에 합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기후변화에 관한 유엔 기본협약(UNFCCC, UN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을 체결함. 본 협약에는 환경 경영과 관련된 3대 핵심 내용(기후변화협약, 생물다양성협약, 사막화방지협약)이 포함되어 있음.
1998	6	**[국제노동기구(ILO) 선언]** 노동에 있어서 기본 원칙과 권리에 대한 4대 원칙에 대한 선언으로, ESG 경영에서 S에 해당하는 노동권 존중의 기본 틀 제공함. 구체적으로 강제노동의 철폐, 결사 및 단결의 자유, 아동노동의 폐지, 고용 및 직업에 대한 차별 철폐에 대한 내용 포함함.

연	월	사건
2000	7	**[UNGC(UN 글로벌 컴팩트) 출범]** 세계경제포럼에서, 코피 아난 전 UN사무총장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자는 취지로 발의한 조직으로, 친 인권 (human right), 친환경 (Environment), 노동차별 반대 (Labour standards), 반부패 (anti-corruption)와 관련된 10대 원칙을 지킬 것을 요구함.
2002	7	**[사베인스 옥슬리법 제정]** 미국에서 기업의 재무 보고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제정한 법으로, Enron과 월드콤(W`orldCom)의 회계 부정 사건 이후 재무 조작과 회계 추문을 방지하기 위해 제정됨.
2003	9	**[UNEP FI(Finance Initiative) 설립]** Deutsche Bank, UBS 등 선진금융기관의 제안으로 설립되었으며, '환경과 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한 금융기관과 보험사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성명서' 공표함. 많은 금융기관이 서명한 직후 자체 환경방침과 환경 리스크 평가 등을 도입하는 등 금융산업의 지속 가능 경영 확산에 크게 기여함.
2005		**[국제금융공사(IFC) 'Who Cares Wins' 보고서]** 자본 시장에 ESG를 포함하는 것이 비즈니스에 합리적이며, 보다 지속 가능한 시장과 사회를 더 나은 결과로 이어 준다고 주장을 담은 보고서로, 'ESG' 용어가 처음으로 쓰임. 향후 PRI 가이드라인 등장에 영향을 미침.
2006	4	**[UN PRI 설립]** UNGC와 UNEP가 UN PRI를 '05년 설립 후, '06년 PRI 원칙 발표함. ESG를 공식적인 용어로 사용하며 ESG를 투자 결정, 자산 운용에 고려한다는 원칙 발표함.
2010	6	**[영국 스튜어드십코드 지정]** 오늘날의 스탠다드가 된 '스튜어드십코드'의 시초. (* Stewardship code: 기관투자자의 역할을 단순히 주식 보유나 의결권 행사에 한정하지 않고, 기업과 적극적인 대화를 통해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기여하고, 이를 바탕으로 고객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에 목적을 둠)
2015	9	**[UN SDGs 제정]** UN 총회에서 2030년까지 지속가능발전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인류 공동의 17개 목표를 의제로 정하고 합의함. 한국은 이와 관련하여 지속가능발전법,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등 정책/법을 통해 개별 목표 이행 중임.
2015	12	**[파리기후변화협약]**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본회의에서 채택한 협정으로, 산업화 이전 수준 대비 지구 평균 온도가 2도씨 이상 상승하지 않도록 온실가스 배출량을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연	월	사건
2017		**[TCFD(기후변화 관련 재무 정보 공개 TF) 권고안 발표]** G20 요청에 따라 금융안정위원회(FSB)가 설립했으며, 기후변화 관련 정보의 공개를 담당함. '21년 6월까지 78개국 2천여 개 이상 기관이 TCFD 및 권고안에 지지 선언함. (국내에선 환경부, 기업은행, 한국거래소 등 44개 기관이 동참)
2018	3	**[EU 지속가능투자 액션플랜]** EU의 지속가능성 향상을 위해 금융이 기여할 수 있도록, 시장 친화적인 제도 인프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 계획임. 금융기관이 기후 변화 리스크를 반영하고, 저탄소 프로젝트에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제도 도입을 가장 먼저 시작함.
2018	10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리포트]** '지구온난화 1.5도 특별 보고서'라는 제목의 리포트로, 2100년까지 지구의 온도 상승이 1.5도를 넘어서면 수천만 명의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식량과 물 부족에 허덕일 것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음.
2019	8	**[미국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이해관계자 경영' 선언]** 기존의 '기업은 주주에게 봉사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주주 우선주의에서, 고객, 근로자, 거래기업, 지역사회, 주주 등 모든 이해관계자를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변경한 선언임. 특히 기업이 고려해야 하는 이해관계자 중 주주의 순위가 맨 뒤로 밀렸다는 시사점이 있음.
2019	12	**[유럽의회 기후 비상사태 선언]** 1990년 대비 40%였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55%로 늘릴 것을 촉구하는 선언임.
2020	1	**[세계경제포럼 지속 가능성 의제 논의]** 지속 가능 가치를 측정할 수 있는 백서를 발간함.

우리나라에서는 2016년부터 스튜어드십 코드 제정, 상장사 ESG 등급 공시 등으로 ESG 투자 시장 활성화 및 규제·지원책을 마련해왔습니다. 2020년에는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탄소 중립 추진 전략을 수립하여, (1) 경제 구조의 저탄소화, (2) 신-유망 저탄소산업 생태계 조성, (3) 탄소 중립 사회로의 공정 전환을 위한 노력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한국거래소에서 기업공시제도 개선안을 발표하여, 2030년부터 모든 유가 증권시장 상장사의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발간을 의무화하였습니다.

스타트업과 관련된 ESG 정책·협약

국내 ESG 정책 및 협약 중 스타트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은 없습니다.

ESG에 관심 있는 국내 스타트업이라면, 중소기업을 타겟으로 하는 정부 정책을 눈 여겨 봐야 합니다. 동반성장위원회에서는 '협력사 ESG 지원사업'을 통해, ESG 평가 지표 준수율이 우수한 협력 중소기업에 'ESG 우수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그리고 사업에 참여한 대기업과, ESG 우수 중소기업의 협력을 도모합니다. '21년 6월에 체결한 지원사업 1호*에는 현대 오토에버가 참여하여, (1)협력 중소기업의 대출 이자 경감을 위한 금융 지원, (2) 복리후생 지원, (3) 인력 채용 및 개발 지원, (4) 세일즈 확보 지원 등을 제공합니다.

최근 한국모태펀드의 2,3차 정시출자 사업에서 ESG섹터가 포함되어 '미래환경산업', '사회적 기업'에 대한 투자 모집을 진행한 만큼, 투자 이외에도 정부 차원의 다양한 시도가 뒤따를 것으로 기대됩니다.

* "동반위·현대오토에버, 협력사 ESG 지원사업 '1호'", 조선비즈, Jun 2021

2

투자 · M&A

ESG투자의 핵심은, 사회의 긍정적인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Forbes*는 ESG 투자를,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기업들과의 협력을 위한 전략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투자를 위한 기준으로는 환경 문제 개선을 위한 성과, 사회적 영향, 거버넌스 문제에 관한 기업의 행동이 있습니다. 이를 측정하는 주체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가치를 지니는 기업과 시장에 투자하게 됩니다.

연	월	사건
1700		**[감리교]** 신약의 가르침 중 돈의 사용이 2번째로 중요한 내용이라는 사실을 지적하며, 술, 마약, 담배, 도박 등의 분야에 투자하지 않았으며, 북아메리카 정착 이후 무기와 노예 산업에의 투자를 거부함. 이는 미국에서 SRI의 근원이 됨.
1928		**[파이오니어 펀드]** 미국 보스턴의 종교 단체에서 시작한 죄악 주식(Sin Stock)을 배척한 펀드로, SRI의 시초가 됨. 주류, 담배, 도박, 포르노를 지양하여 투자하는 것을 의미함.
1971		**[PAX World Fund 설립]** 감리교 원칙으로 시작된 미국의 첫 윤리적 펀드로, 기독교인들이 윤리적 가치로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을 최초로 제시함. 이를 시작으로, 기업의 윤리적 책임에 대한 기준 수립, 비재무적 요소 평가 방안 탐색하고, 지속 가능한 투자, 임팩트 투자, ESG Investing 기초 및 산업 발전 시작점 역할을 함.
2007		**[유럽 투자 은행, 그린본드 첫 발행]** 유럽 투자 은행에서 처음으로 그린본드를 발급한 이후, 주로 최우량 신용 등급 (AAA급)을 보유한 세계은행, IMF 등 국제기구에서 그린본드를 발행하기 시작함. (* 그린본드: 친환경적 활동과 신재생 에너지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녹색 산업과 관련된 용도로만 사용이 제한된 채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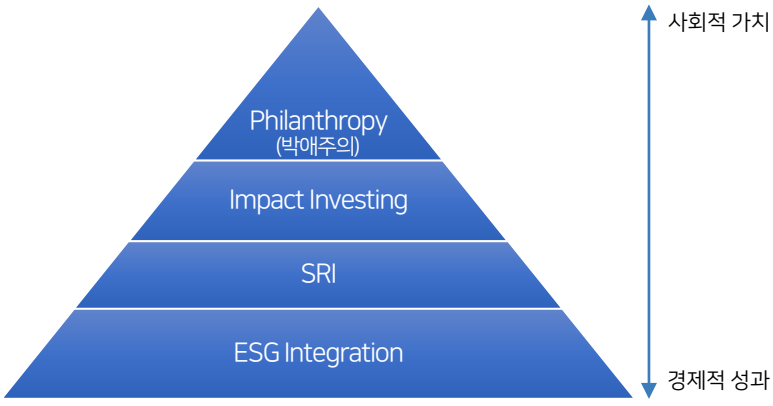
* "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What is ESG Investing?", Forbes, Mar 2021

연	월	사건
2020	1	[Blackrock CEO 래리 핑크의 서한]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Blackrock의 CEO가 투자를 받는 일반 기업에 대해서는 금융의 근본적 구조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투자자에게 Blackrock의 새로운 투자기준으로의 지속가능성을 주제로 각각 서한을 보냄. 동시에 수익이 25% 이상 발생하는 석탄 산업에 대한 투자를 중단한다고 밝힘.

ESG 이전에도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투자 흐름은 아주 오래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ESG의 투자 시장 규모는 성장하고 있습니다. 결성되는 펀드액, 참여하는 주체 모두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G20 기후관련정보공개대책반('17년), EU 지속가능 액션플랜('20년) 등을 통해 주요 국가 간 합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성과 측정 지표들이 발표되고,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최근 2년 사이, 주로 대기업을 위주로 ESG에 대한 투자와 경영 혁신 노력이 확대되며 저변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ESG와 비슷한 개념으로, SRI(Socially Responsible Investment)가 있습니다. SRI는 사회책임투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재무적 성과뿐만 아니라 비재무적 성과인 ESG도 함께 고려한 투자를 진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외에도 유사한 개념으로 Impact 투자가 있습니다. Impact투자는 사회나 환경문제를 직접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업, 단체, 펀드에 직접 투자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ESG 자체는 여러 경영활동, 성과 측정, 정책 협약 등을 아울러 의미하는 것이라면, SRI는 이를 고려하여, ESG 관점에서 역량이 떨어지는 기업을 스크리닝 하는 것을 의미하고, Impact 투자는 직접적으로 ESG를 해결하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투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회적 가치 투자 포트폴리오>



(출처: Carin L. Pai, "Investing with Purpose", Fiduciary Trust International, Apr 2019)

ESG 투자의 유형*은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

- **네거티브 스크리닝**: 특정 E, S, G 기준을 토대로 부정적으로 평가되는 산업, 기업을 포트폴리오나 펀드 구성에서 배제하는 방식
- **포지티브 스크리닝**: 동종업계 비교집단보다 상대적으로 우수한 ESG 성과를 보이는 기업 등을 선별하여 투자하는 방식
- **규범기반 스크리닝**: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규범(국제노동조약, OECD, UN 등)에 따라 그 충족 여부를 투자 심사에 반영하는 방식
- **ESG 통합**: 투자 분석 과정부터 결정 단계까지 ESG 항목을 체계적으로 고려하여 기업가치평가에 재무적, 비재무적 분석을 병행
- **지속가능 테마투자**: 지속가능성에 특화된 테마(청정에너지, 녹색기술, 지속가능 농업 등)의 기업에 투자하는 방식
- **임팩트 투자**: 사회, 환경 문제를 해결하여 긍정적인 영향을 끌어내기 위한 투자, 혹은 소외된 계층이나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특화된 투자
- **경영참여 및 주주행동**: 기업의 사회 책임 개선을 위한 의결권 행사, 이사회 의석 확보 등 주주 권한을 적극적으로 이용

스타트업과 관련된 ESG 투자·M&A

국내에서 ESG를 고려한 스타트업 투자는 주로 환경과 사회 측면에서 이루어져 왔습니다. 옐로우독, 소풍벤처스, 한국사회투자, D3쥬빌리 등의 임팩트 투자사는 UN의 SDGs(지속가능발전목표) 중 적어도 한 가지는 달성하겠다는 비전이 있는 기업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금융권 및 대기업에서의 ESG 스타트업 투자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신한퓨처스랩'을 운영하며 ESG 섹터의 스타트업을 발굴하여 육성하는 신한금융그룹, 'ESG코리아 얼라이언스' 등을 결성하여 스타트업 ESG 경영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아낌없이 투자를 집행하는 SK그룹 등이 있습니다. ESG 펀드 결성이 늘어가고, 국내 경제계에서의 ESG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되는 만큼, 앞으로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될 것입니다.

* <2018 Global Sustainable Investment Review>, Global Sustainable Investment Alliance, 2018

3

성과 측정

ESG의 성과는 투자, 정책 수립, 기술 및 사업 개발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습니다. ESG를 위한 움직임이 어떤 성과가 나는지 파악하지 못한다면, 어떤 노력을 얼마나 기울여야 하는지 방향성을 잃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 기업, 기관에서는 자체적인 연구를 통해 ESG 측정 기준을 마련하고, 등급을 부여하기도 합니다. 일부 시스템은 ESG에 관한 성과를 중심으로 측정하기도 하고, 또 다른 일부 시스템은 ESG 관련 위험도(ex. 심각한 탄소배출 등)를 중심으로 측정하기도 합니다.

ESG 평가 기관은 ESG 정책이나, 기업에서 발표한 자료, 데이터, 혹은 기타 이해관계자 등을 통해 수집한 자료를 기반으로 평가합니다. 우수한 ESG 등급을 보유한 회사의 경우, 브랜드 이미지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유럽과 미국의 금융 기관을 중심으로 투자 심사에서 ESG를 활발히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문제점도 있습니다. 재무적인 성과와 달리, 다소 정성적인 요소가 반영되기 때문에 ESG 평가에 대한 신뢰도 이슈는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내 평가 기관들이 지금까지 평가한 기업의 ESG 점수에서, 거버넌스 점수보다 환경 점수는 평균값에 비해 낮았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는 환경 요소 평가 시 활용할 수 있는 객관화된 자료가 훨씬 더 많기 때문입니다.

연	월	사건
1990		[Domini 400 Social Index] 에이미 도미니(Ami Domini)가 SRI 대표 지수를 만들었으며, 이는 윤리 투자의 확산으로 이어짐.

* 이인형, <ESG 평가 체계 현황과 특성 분석>, 자본시장연구원, 2021

연	월	사건
1999		[DJSI World 지수] 미국 금융정보사 S&P 다우존스 index와, 스위스 투자평가기관인 로베코샘이 공동 개발한 지수로, 기업의 재무적 성과와 사회 공헌, 환경 경영 등 다양한 측면에서 기업 경영 활동을 종합적으로 평가함. 이는 세계적인 권위의 기업 경영 평가 지수가 됨.
2001	7	[FTSE4GOOD 지수 발표] 영국의 경제일간지 파이낸셜 타임스지와 런던증권거래소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FTSE 인터내셔널에서, 기존 FTSE지수에 포함된 기업을 대상으로 환경보호, 인권보장, 사회적 책임 등의 세 가지 항목을 조사해, 우수한 점수를 얻은 기업을 지수에 포함함.
2004	8	[WilderHill 청정에너지 지수] 첫 대체 에너지 지수로, 청정에너지를 촉진하는 에너지와 기술의 녹색 및 일반적으로 재생 가능한 원천에 초점을 맞춘 기업 선정을 통해 자본 가치를 전달하기 위해 개발됨.
2010	3	[MSCI의 RiskMetrics Group 인수] RiskMetrics의 기존 방식을 활용하여 더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ESG 평가 가능해짐.
2016	10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 표준 발표] 97년에 만들어진 지속 가능성 보고 전문 독립적인 국제 조직인 GRI에서, 기업 및 기관의 지속가능성 평가 지표 설정함. (이는 비재무적 정보 공개 기준임)
2018	11	[SASB, 산업별 지속가능성 보고 표준 발표] '11년에 설립한 비영리 독립 단체이자, 기업이 투자자에게 재정적으로 중요한 지속가능성 정보를 공개하는 데 지침이 되는 표준을 마련한 SASB에서 산업별 지속가능성 회계 기준을 세계 최초로 체계화함. 이를 통해 시장 참가자들이 일관성 있고, 비교 가능하며 신뢰할 수 있는 지속 가능성 관련 정보를 참고할 수 있게 됨.

스타트업과 관련된 ESG 성과측정

국내에는 스타트업에 대한 ESG 평가가 활성화 되어있지 않습니다. 스타트업의 ESG는 성과 측정에 대한 자료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기준도 모호하기 때문에, SRI의 일환으로만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4

기술 · 사업 개발

지속 가능한 경영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경영 혁신이 필요합니다. ESG 관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과 사업을 개발해야 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환경 요소와 관련된 기술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비재 기업에서 제품을 생산할 때 폐기물이 많이 발생하는 상황이라면,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신소재를 개발하여 돌파구를 찾을 수 있습니다.

기술 및 사업 개발은, 이를 주도하는 주체에 따라 1) 정부 주도형, 2) 대기업 주도형, 3) 스타트업 주도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정부 주도형**: 주로 정부 자금을 기반으로 정부 기관에서 개발하는 경우 (ex. 대학, 정부출연연구원 등에서의 기술 개발)

- **대기업 주도형**: 대기업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자체적인 개발 혹은 중소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이루어지는 개발 (ex. 대기업이 중견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공급망 개선)

- **스타트업 주도형**: 스타트업이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경우로, 주로 환경, 사회 문제와 관련되어 있으며, 거버넌스 관련 개발은 거의 없음

최근 국내에서는 대기업을 위주로 ESG 관련 신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스타트업에서는 주로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기술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도 탄소 배출 감소를 위한 기업 대상 캠페인 등이 진행되고, 특히 글로벌 주요 기업들 위주로 ESG 관련 기술 및 사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스타트업과 관련된 ESG 기술·사업 개발

사례 1*) ESG 정책과 스타트업의 기술·사업 개발

우리금융지주는 지난 10일(2021.06.), ESG와 도시문제 해결에 특화된 스타트업을 찾기 위해 서울산업진흥원(SBA)과 MOU를 체결했습니다. 서울산업진흥원은 중소기업 관련 지원사업을 기획하고 집행하는 서울시 공공기관입니다. ESG를 적극 지원하는 정부 정책 기조에 맞게, ESG 관련 문제를 해결하는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사업을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사무 공간과 스타트업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우리금융지주로의 투자 유치까지 지원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다양한 주제 아래에서 진행되는 정부 스타트업 지원사업이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ESG 관련 정책이 체계화될 경우, 본격적으로 스타트업 지원사업도 우후죽순 생겨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례 2) 대기업 투자를 받은 스타트업 ESG 기술·사업 개발**

BMW 그룹은 최근 'Boston Metal'이란 미국 스타트업에 투자했습니다. 이 스타트업은 이산화탄소 배출이 없는 강철 제조 기술을 보유하여, 화석연료를 쓰는 기존 용광로 대신 전기 분해 셀을 이용해 주철 생산 및 강철 가공을 할 수 있습니다. BMW는 RE100 선언을 하는 등 ESG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투자는, 화석연료 사용을 최소화하여 친환경적인 공정으로 자동차를 생산하겠다는 BMW의 의지가 엿보이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BMW그룹의 구매/협력 네트워크 총괄 이사는 '자동차 생산에 필수적인 강철 공급 사슬에서 이산화탄소 배출을 지속해서 줄여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SG에서 앞장서는 국내외 대기업은 ESG와 관련된 기술을 가진 기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때로는 인수하기도 합니다. 다만 투자의 대부분은 Environment 요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사례 3*) 자체적인 스타트업 ESG 기술·사업 개발**

지역 기반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은 자원의 재사용과 나눔 문화를 확산하여 ESG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2020년 당근마켓 연말 결산에 따르면 국민의 20%가 한 달에 한 번 이상 당근마켓을 사용하고, 한 해 동안 재사용된 자원의 가치는 약 2,770만 그루의 나무를 심은 효과와 맞먹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GS리테일과 협업하여, 동네 편의점과 슈퍼마켓에서 버려지는 유통기한 임박 상품 할인 정보를 지역 주민에게 알려서 버려지는 음식물을 최소화하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GS리테일 점포의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여 지역 내 일자리를 창출하고, '재난지원금 여기서 사용하세요' 캠페인과 같은 지역 내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는 등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예정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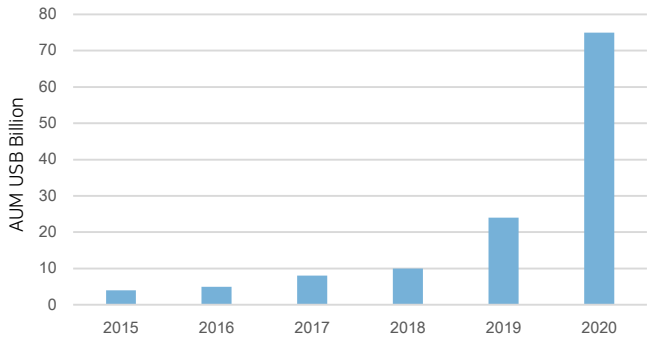
* "서울산업진흥원x우리금융지주… 'ESG, 도시문제' 해결하는 기업 육성', 머니투데이, Jun 2021
** "BMW Group invests in innovative method for CO2-free steel production", BMW Group, Dec 2021
*** "글로벌 대세 ESG 경영… 당근마켓 "우리도 한다"", EBN, Feb 2021

ESG 현황

- Player & Index -

세계적으로 ESG 생태계는 성장하고 있습니다. 정책 협약의 경우, 규제를 기준으로 2020년에는 650건을 넘어섰습니다. 투자는 UN PRI에 가입한 기업을 기준으로 봤을 때, 전 세계에서 약 3천 개 자산운용사가 함께하고 있으며('21년), 펀드 규모(ETF, ETP)로 봤을 때는 1,87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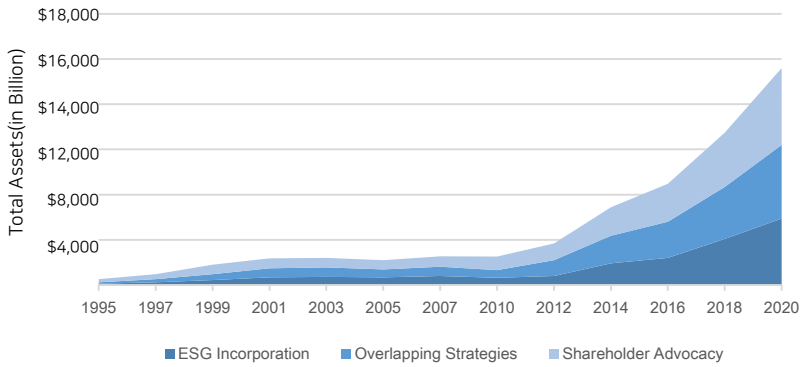
<글로벌 ESG ETF의 성장>



(출처: Refinitiv/Lipper and MSCI ESG Research LLC, Dec 2020)

ESG를 포괄하는 '지속 가능한 투자'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 규모가 더욱 커집니다. 20년 미국에서는 16.6조 달러를 달성했습니다.

<미국 지속가능투자 결성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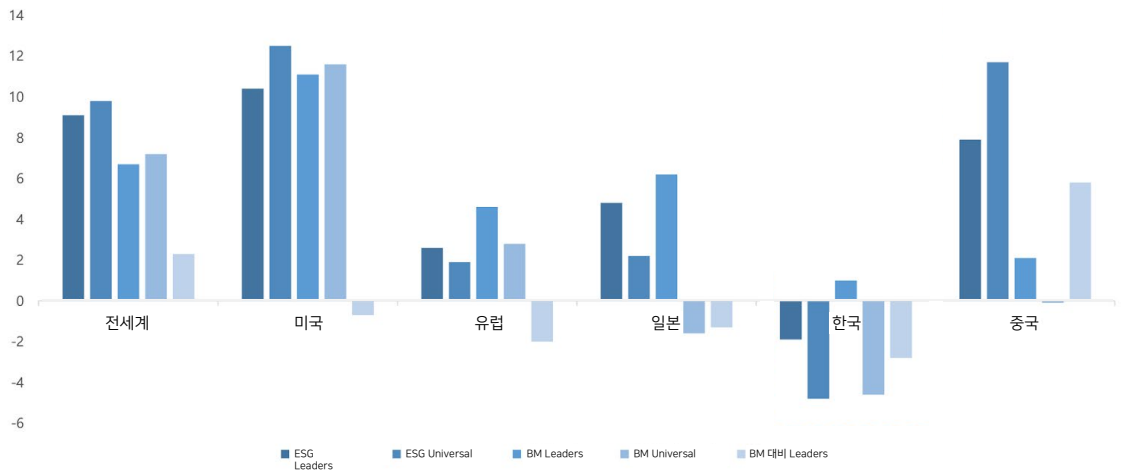


(출처: US SIF Foundation, 2020)

성과 측정의 경우, 약 300개의 정보 공개 표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기술과 사업 개발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UNGC 등록을 통해 ESG와 가치를 함께하겠다고 공언한 기업은 약 11,000개입니다. 실제적으로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의 기업이 존재할 것입니다.

한국에서도 다양한 투자와 성과 측정, 기술 및 사업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한국은 전 세계 대비 낮은 수준의 ESG 지수 성과를 보입니다. MSCI에서 2019년 조사한 결과, 미국이나 유럽, 일본, 중국, 나아가 전 세계와 대비하여 봤을 때 성적표가 매우 좋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ESG의 개념이 도입 된 지 얼마 안 된 후발주자라는 점, SK / 삼성 등 글로벌 대기업에서 생태계를 주도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성과 개선이 될 것이라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MSCI ESG 지수 기준 성과>



(출처: 신한금융투자)

Expert Interview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문정빈 교수는 국가별 ESG 지수는 도입 시기와 국가별 기업을 대하는 사회적 분위기 차이로 인해 달라진다고 설명합니다.

○ **미국/유럽과 동아시아 국가 간 ESG 비교**

" 미국과 유럽은 ESG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사회책임투자(SRI)가 30년 동안 성장해 왔습니다. 따라서 ESG 평가 기준 역시 서구 기업의 기준에 맞게 설정이 되었는데, 이를테면 여성과 성 소수자에 대한 차별 방지가 있습니다. 이는 미국에서는 중요한 과제이고, 서구에서는 당연한 사회적 규범이 되었지만, 아시아권에서는 아직 이런저런 논란이 있습니다. RE100과 같은 재생에너지 사용 이니셔티브 역시, 서비스업 위주의 서구에 비해 제조업 중심인 동아시아 국가에게 있어서는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입니다. "

○ **한중일 ESG 비교**

" 다만 중국의 경우 공산당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자연스레 기업들이 사회적 책임을 중시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고, 심각한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재생에너지 및 친환경 기술 개발에 사활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MSCI 등 대표적인 ESG 지수에 포함될 만한 중국 상장 기업의 ESG 성과가 나쁘지 않은 편이죠. 우리나라보다 자본시장이 폐쇄적인 일본의 경우, 외국 투자자보다 일본인 투자자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7~8년 전까지만 해도 ESG 무풍지대였습니다. 그런데 일본 정부에서 GPIF와 같은 연기금을 통해서 SRI의 드라이브를 걸기 시작하면서 눈부신 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올해가 ESG의 원년인 셈인데요. 자연스레 MSCI 지표상에서도 볼 수 있듯, 아직 다른 국가 대비 뒤처진 모습을 보입니다. "

○ 한국의 ESG 현황

"우리나라는 세계사적으로도 희귀할 만큼 압축 성장을 한 나라입니다. G7 국가들에 비해서도 자본주의 역사가 짧은 만큼, 거버넌스에 대한 논의가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일반 투자자는 아직까지 ESG의 기반이 되는 이해관계자 중심주의에 대해 이해도 부족하고 정서적 반발도 심합니다. 우리나라 ESG가 외국인 투자자와 연기금 등에 의해 주도될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ESG는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요? 다른 국가들의 선례처럼, ESG를 내건 기업과 펀드가 움직이는 모습을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문정빈 교수의 추가 설명과 같이, 'ESG를 표방한 기업/펀드 중 옥석이 가려진다면, 자연스럽게 일반 투자자들도 ESG에 대한 이해가 깊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자본 시장이 지난 30년간 빠르게 개방되고, 선진화된 만큼 ESG에 있어서도 충분한 희망을 품고 준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스타트업으로 시작한 네이버, 카카오, 넷마블, NC Soft 등의 기업은 이제 국내 자본 시장에서도 중요한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매년 빠르게 성장하여, 시총 기준 국내 Top 100 기업 내에서도 상위권에 자리 잡고 있는 기업들이 속속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연령대가 낮고, 유연한 기업 문화를 기반으로 성장한 스타트업은 환경과 사회, 거버넌스에 대한 관심 역시 높습니다. 앞서 국내외 ESG 현황에 대한 의견과 더불어, 문 교수는 '친환경, 친노동, 친다양성 측면에서의 참신한 시도를 통해, 스타트업이 대기업과 차별화를 하고, 이러한 지점들이 투자자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서 더욱더 빠르게 성장하는 선순환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pert Profile

문정빈 교수는?

서울대학교에서 경제학사, Wharton School(University of Pennsylvania)에서 경영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2009년부터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교수로 역임 중이다. 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 국제 경영전략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일진창업지원센터장으로서 학생창업에도 기여하고 있다.

ESG 현황 – Player & Index

스타트업 상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소풍벤처스 한상엽 대표에 따르면*, 최근 VC들 사이에서는 ESG와 관련된 주제가 자주 언급되고 *– 퓨처플레이도 ESG 리포트를 작성하고 있는 것처럼–* 있습니다. 하지만 스타트업에서는 E, S, G에서 두루 임팩트를 내고 있지 못합니다. 성과를 명확히 측정할 수 있는 결과적인 요소인 E는 강조가 되지만, S, G는 스타트업의 ESG 생태계에서 중요하게 고려되고 있지 않습니다.

Environment 요소에서 스타트업의 입지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대기업에서 녹색 에너지, 탄소 중립 등으로 빠르게 전환하는 가운데, 관련 기술과 비즈니스 역량을 갖춘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 및 M&A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 한상엽, "VC를 위한 ESG 세레나데", KVIC, 2021

ESG 현황 – Player & Index

글로벌 ESG 경영 생태계 현황

1) Reporting: 기업 공시를 의미함. 기존의 기업 공시는 기업의 모든 재무적인 정보를 투자자에게 공개하는 것에서 나아가 ESG 지표까지 함께 공개하는 것을 의미함. 추가로, 기업별 ESG 지표를 측정하여 일반 대중에게 공개하는 서비스도 Reporting에 포함하였음.

2) Index: 기업의 ESG 가치를 평가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평가 지표임.

ESG 현황 – Player & Index

국내 ESG 경영 생태계 현황

1) Reporting: 기업 공시를 의미함. 기존의 기업 공시는 기업의 모든 재무적인 정보를 투자자에게 공개하는 것에서 나아가 ESG 지표까지 함께 공개하는 것을 의미함. 추가로, 기업별 ESG 지표를 측정하여 일반 대중에게 공개하는 서비스도 Reporting에 포함하였음.

2) Index: 기업의 ESG 가치를 평가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평가 지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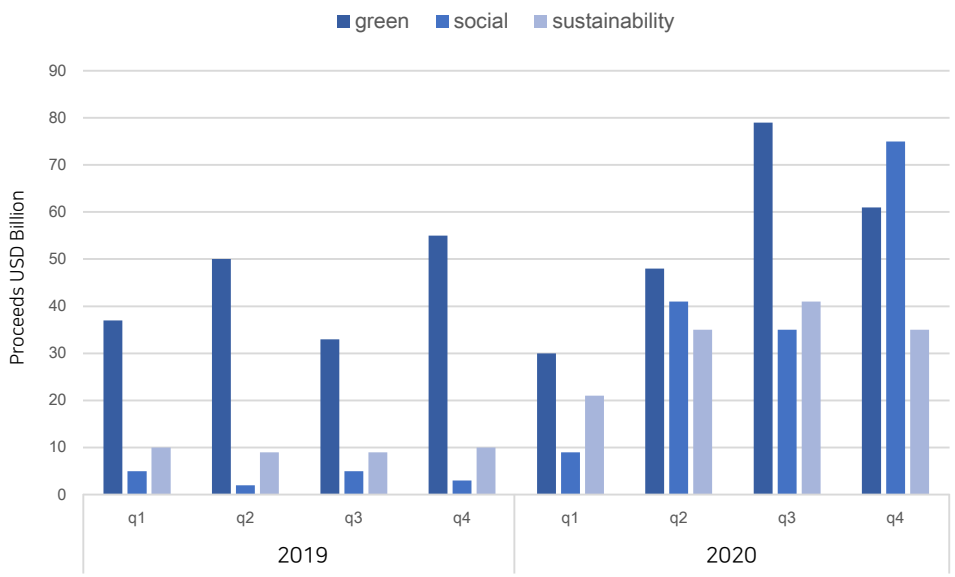
ESG 투자 사례

1

Environment

'환경'은 ESG 중 가장 많은 투자가 진행되고 있는 분야로, 기후/오염/에너지 등의 전 세계적으로 공통된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Environment에 대한 투자는 성과 지표를 정량적으로 판단하기에 용이하고, 재무적인 성과도 기대해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ESG 섹터별 투자 규모>



(출처: Rifinitiv)

그뿐만 아니라 ESG 중 환경과 관련된 정책 및 협약은 활발히 제정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탄소 중립 선언'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파리 기후 협정 이후,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LEDS; Long-term Low greenhouse gas Emission Development Strategy)을 수립하고, '20년 10월 문재인 대통령이 2050년 탄소중립 목표 선언을 했습니다. 지속 가능한 에너지를 유통하고, 이를 활용한 다양한 제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퓨처플레이에서도 Environment 요소 관련 스타트업에 투자한 이력이 있습니다. VGen, EQUAL, Skycool입니다. 세 기업의 투자 사례를 조명하며, ESG 생태계의 연결성을 함께 소개하고자, 관련된 정책 및 협약과 투자, 성과 측정을 정리했습니다.

VGen
Very Good Energy Network

① VGen

" 분산 전원의 공급량 예측 기술을 통해 에너지 수급의 효율성을 높이는 기업 "

VGen은 친환경 전력 발전 및 사용량을 예측하고 효율적으로 분배하는 솔루션인 K-VPP를 개발하여, 에너지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K-VPP(Virtual Power Plant)는 AI 기반 가상 발전소를 운영하는 소프트웨어입니다. 분산 전원, 즉 태양광, 풍력발전소와 같이 전력 소비자 근처에 설치된 발전기는 전력 발전 및 수급이 불안정합니다. 기상 악화로 인해 블랙아웃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를 해결하기 위해 VGen의 K-VPP는 여러 분산 전원을 한 번에 관리합니다. 흩어져있는 분산 전원을 중앙화하여 관리하게 되면, 전력의 발전과 공급, 수급에 대한 변수를 사전에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더욱 효율적인 에너지 공급이 가능해집니다. K-VPP만의 특장점은 독자적인 AI 예측 기술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활용하여 높은 예측 정확도를 보입니다.

K-VPP를 사용하면, 최적의 전력 판매가 가능합니다. 예측된 발전량을 토대로 전력 입찰 및 전기저장장치(ESS)의 충전 및 방전 계획을 자동으로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 잉여 전력의 활용이 가능해집니다. VGen과 유사한 한 독일 에너지기업의 리서치에 따르면, VPP를 통한 전력 판매는 연간 수만 톤의 Co2를 절감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지닌다고 합니다.

퓨처플레이의 신채호 심사역은 친환경 에너지 산업의 성장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고 판단되었고 태양광, 풍력발전 등의 친환경 분산 전원들을 활용하는 데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VPP 솔루션의 국내 1등 기술을 보유한 VGen에 투자하는 결정은 어렵지 않았다고 언급하였습니다.

백승엽 대표는 석탄 화력 발전기의 셧다운을 보면서, 이제는 신재생 발전이 15% 이상의 발전 공급량을 차지하는 것이 더이상 꿈은 아니라는 희망을 갖고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또한 2010년대 초 해외에서 인공지능 기반 예측 및 최적화 기술을 활용하여 전력 판매 최적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모습을 보고 비전을 발견했습니다. 백승엽 대표는 VGen이 전기에너지 공급의 친환경화를 이룬 이후, 수요의 친환경화를 이루는 것까지 목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QUAL
move for you

② EQUAL

" 시장이 요구하는 B2B 전기차를 개발하여, 도시의 환경 오염을 줄이는 기업 "

EQUAL은 도심에서 소규모 화물 배송에 특화된 이륜 전기차를 개발하여, 기존의 내연기관 운송으로 발생하는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배달의민족, 쿠팡 등 플랫폼에서는 Gig 노동자를 기반으로 음식이나 물건을 배송합니다. 전문적인 배송을 하지 않는 노동자의 경우, 하루에 몇 시간씩 짬을 내어 운송을 하므로 자차나 전기자동차 등 개인이 소지한 모빌리티를 활용합니다. 전문 운송 장비가 없기 때문에, 물건 적재가 어려워 배달/운송의 효율이 낮아지거나 기름값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EQAUL은 소규모 화물 배송에 특화된 형태의 이륜 전기차를 개발하고, 이를 렌트하는 비즈니스를 통해 문제를 해결합니다. 개발 중인 이륜 전기차는 기존 차량 대비 2.5배의 물건을 적재할 수 있으면서도 사이즈가 작아서 도심 속 운전에 용이합니다. 또한 적재 물건 종류별로 선택할 수 있도록, 개방형, 폐쇄형 등으로 다양한 형태로 화물칸이 설계되어 있습니다. 설계가 단순화 되어있고, 경량화된 부품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생산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퓨처플레이의 신채호 심사역은 최근 경제적 효과와 사회적 임팩트를 동시에 보여주고 있는 Gig이코노미에 새로운 접근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EQUAL은 환경적인 부분에서의 기여 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의 경제활동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기업으로서 매우 큰 성장 잠재력을 보고 투자 결정을 했다고 언급했습니다.

EQUAL은 전 세계 수 억대에 달하는 내연기관 이륜차의 10%를 EQUAL의 전기차로 대체하여, 환경적인 가치에 조금이라도 기여하고 싶다는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노영조 대표는, 사회적으로 환경 오염에 대한 인식이 증가하고 있고, 내연 기관 차량의 높은 유류비와 유지비 등을 고려했을 때 전기차는 피할 수 없는 트렌드일 것으로 예측합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차량을 개발할 기업은 ' 우리가 아니면 없다'라는 책임감을 갖고 개발에 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③ Skycool Systems

" 열 반사 기술 기반 냉각 시스템을 개발하여, 냉각에 필요한 자원 소모를 최소화하는 기업 "

Skycool **Systems는** 방사 방식의 냉각 시스템을 만들어, 세계적으로 냉각에 소비되는 에너지를 절약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약 20%의 에너지는 냉장고, 에어컨, 혹은 데이터 센터 등의 냉각에 사용되며, 이는 경제적 가치로 환산했을 때 2천억 달러에 달합니다. 단순히 경제적인 손실일 뿐만 아니라, 지구 환경에도 무거운 짐입니다.

글로벌 온실가스의 10%는 냉각으로 인해 발생하고, 매년 약 6천억 톤의 물을 사용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일시적인 것이 아닙니다. 점점 더 많은 디바이스를 사용할수록, 그리고 기존의 냉각 시스템의 효율이 떨어질 정도로 더 많은 물과 에너지를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Skycool **Systems는** 최소한의 에너지를 사용하고, 물을 사용하지 않는 냉각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지구의 각종 열을 반사하는 기술을 통해, 재생 가능한 형태로 냉각을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Dual-Mode 필름을 사용합니다. 건물 외벽이나, 야외에 있는 각종 전기제품, 혹은 자동차의 상판에 이 필름을 부착하면, 낮 동안 태양열을 반사하고 적외선을 방출합니다. 에너지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도 눈에 띄게 온도를 낮출 수 있습니다. 또한 에어컨이나 냉장고에도 사용을 할 수 있는데, 때론 그 성능이 에어컨의 일부 유닛을 대체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냉각에 사용되는 수준에 따라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10~40%의 냉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에어컨 시스템을 완전히 대체하게 될 경우, 80~90%의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합니다. 실제로 Skycool **Systems**의 본사가 있는 미국에서 데이터 센터, 식료품점, 편의점의 냉장고 등 건물 전반/데이터센터/콜드체인에 이르는 넓은 사용 범위를 보여줍니다.

퓨처플레이의 최재웅 심사역은 Skycool **Systems**의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차별화된 기술은 단순히 환경적으로 에너지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을 넘어서서 기업들의 에너지 비용을 큰 폭으로 절감해줄 수 있다는 점에서 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창업가인 Eli Goldstein은 '우리 팀은 환경에 대한 열정을 갖고 있으며, 특히 건물의 에너지 사용량 절감이라는 미션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Skycool **Systems**의 기술 구현을 위해 하드웨어와 에너지를 모두 다루는 일은 무척 어려우며, 사업 모델 및 기술의 검증과 세계적으로 스케일업 하는 데에는 큰 자본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제조 공정 단계에서 발생하는 부담을 줄이고, 전 세계에 있는 주요 고객들과의 협업을 통해 사업을 검증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내 Environment Sector 스타트업 예시>

기업명	설립 연도	대표자	설명
스타스테크	2017	양승찬	해양폐기물인 불가사리를 재활용하여 만든 친환경 제설제 '에코스트원'
마린이노베이션	2019	차완영	플라스틱을 대체하기 위해 해조류 추출물/부산물로 만든 비닐봉지 등
업사이클리스트	2016	김경준	업사이클링 브랜드 편집샵 및 브랜드 '누깍'
지구인컴퍼니	2017	민금채	식물성 대체육 브랜드 '언리미트'
솔라커넥트	2016	이영호	태양광에너지 발전 부동산/금융 등 자문서비스 '솔라커넥트'
수퍼빈	2015	김정빈	인공지능 재활용품 수거 기기 '순환자원 회수로봇' 등
이큐브랩	2011	권순범	IoT 센서 기반 스마트 압축/분석 쓰레기통 '클린큐브' 등
리코	2018	김근호	B2B 폐기물관리 솔루션 '업박스'
더플랜잇	2017	양재식	계란을 넣지 않은 순식물성 마요네즈 '잇츠베러마요' 등
리하베스트	2019	민명준	식혜/맥주 제조 공장 식품 부산물로 만든 그래놀라바 '리너지바'

2

Social

Social 요소는 인권, 지역사회와의 관계, 고객 복지, 그리고 디지털화가 진행된 요즘 시장에서 요구되는 데이터 안전성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임팩트 투자 업계에서 주로 사회적인 가치를 기반으로 한 투자가 이루어져 왔습니다.
퓨처플레이에서도 Social요소에 대해 좋은 성과를 내는 기업에 투자를 집행했습니다.

두손컴퍼니

① 두손컴퍼니

" 사회 취약 계층에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여, 빈곤 문제를 해결하는 기업 "

두손컴퍼니는 온라인 셀러의 성장을 돕는 풀필먼트 서비스 기업으로, 이커머스 전문 물류 서비스 품고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손컴퍼니는 아주 오래전부터 시장의 문제와 사회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왔습니다. 바로 취약계층을 고용하는 것입니다. '21년 5월 기준, 취약계층 30명을 고용하여 물류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원래 두손컴퍼니는 '두 손'으로 종이 옷걸이를 조립하여 판매하는 기업이었습니다. 2011년에 노숙인이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찾다 보니 발견한 비즈니스 모델이었습니다. 당연히 조립을 위해서는 인력이 필요한데, 그 많은 인력 수요를 취약계층으로 채웠습니다.

기업 내부에서는 업무를 가르쳐주는 교육 시스템과, 성과가 좋을 경우 정규직 전환의 기회가 제공됩니다. 또한 '두손드림 자활지원 시스템'을 통해 홈리스를 채용하고, 채용에 대한 상담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현재 두손컴퍼니는 무척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현재 누적 투자액 64억 원이고, '18년도에 물류창고 3차 확장과 '20년 용인에 5천 평 규모의 풀필먼트 거점 센터를 마련했습니다. 빠르게 성장하는 가운데서도 가치를 잃지 않고 있습니다. 기존엔 홈리스 쉼터를 기반으로 주로 채용했는데, 최근에는 지역자활센터나 빅이슈 등 다양한 복지기관/비영리기관에서 상시채용하고 있습니다.

박찬재 대표는 두손컴퍼니는 사명을 갖고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팀이라고 밝혔습니다. 첫 번째로는 일자리 등의 자활시스템을 통해 빈곤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온라인으로 비즈니스를 시작하는 스몰 비즈니스의 성장을 지원하는 것을 꼽았습니다. 물론 아직도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면 사업성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 ' 하는 편견 섞인 질문을 받지만, 앞으로도 비즈니스 성장에 따라 더 많은 취약 계층을 고용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todo] WORKS

② 토도웍스

" 합리적인 가격의 휠체어 자동화 제품을 판매하여, 장애인의 편리한 삶을 만드는 기업 "

토도웍스는 수동휠체어를 더욱 쉽게 조종할 수 있도록 돕는 휠체어 파워 어시스트인 '토도 드라이브'를 만들어, 노약자와 장애인의 이동을 더욱 편리하게 해줍니다. 휠체어 파워 어시스트는, 수동 휠체어에 부착하면 전동 휠체어처럼 사용할 수 있는 보조용 장치입니다. 기존 제품은 무게도 무거운 데다가 가격도 1천만 원에 달하는 등 여러모로 진입장벽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가격은 약 1/5배 수준으로, 무게도 1/3 수준으로 낮춘 토도웍스는 '진정한 배리어 프리(barrier free)'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비전이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하드웨어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스마트폰으로 휠체어를 조정할 수 있도록 컨트롤 용도의 모바일 앱을 직접 개발합니다.

심재신 대표는 원래 대기업 시제품을 만들어주는 한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휠체어를 잘 몰랐다고 합니다. 어느 날 휠체어를 탄 딸의 친구가 집에 놀러 왔고, 수동 휠체어로 이동할 경우 발생하는 여러 어려운 점에 대해 듣고 제품 개발에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출시한 후, 작은 제품 하나로 인해 삶이 바뀌었다고 말하는 장애인들의 목소리를 들으며, 토도웍스가 가진 기술의 의미와 회사의 존재 이유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을 했습니다. 단지 시장이 작다는 이유로, 그간 토도드라이브 같은 제품이 출시되지 못했다는 현실을 깨닫게 된 후, 토도웍스 팀은 '우리 제품을 쓰는 사람의 삶이 바뀌는 모습을 바라볼 때 가장 큰 만족감을 느낀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토도 드라이브는 단순히 수동 휠체어를 더 편하게 만들어주는 기계가 아니고, 컴퓨팅 기술을 기반으로 사회적 약자의 불편을 해소하는 IT 적정 기술 프로젝트의 첫 단추입니다. 현재까지 1,300대 가량 판매된 토도 드라이브를 시작으로, 누구나 기술의 이점을 누리며 편리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나가고 있습니다.

Local Stitch

③ 로컬스티치

" 청년을 위한 주거 공간 제공을 통해, 지역 사회 발전을 도모하는 기업 "

로컬스티치는 특화된 디자인을 바탕으로 공유공간을 함께 이용하는 코리빙(co-living)주거와 코워킹 업무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에 있는 13개의 지점에는 프리랜서 작가, 셰프, 바리스타, 공방 운영자 등 자신만의 브랜드를 콘텐츠로 사업을 벌이는 소규모 비즈니스 운영자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들을 바탕으로 전문적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하고, 전문적 컨설팅 시스템으로 성장을 돕는 엑셀러레이팅을 시도하기도 합니다. 사무실을 만든 후 입주사를 받는 게 아니라, 입주를 원하는 기업의 업종과 예산, 조건 등에 맞춰 건물부터 함께 찾아서 시설 및 인프라까지 만들어 제공하는 '커스텀 오피스(맞춤형 사무공간)' 시스템을 도입한 공유 오피스도 있습니다.

공간을 공유하고, 지역사회와 연결하여 가치를 창출하기도 합니다. 이를테면 로컬스티치 1호점은 '마을 호텔' 개념으로 만들어져, 지역 내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한 공간 안에서 서로에게 영감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허름한 여관을 리모델링하여 주변 상점과 연계하기 위한 시도를 해왔습니다.

현재 로컬스티치의 입주자는 약 700여 명 정도입니다. 30%는 스타트업 종사자, 30%는 개인 창작자 및 프리랜서입니다. 다양한 관심사를 가진 청년들이 주민이 되면서 도심의 오래된 중소형 건물주의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주민들은 청년들이 입주함으로써 지역에 카페, 매거진바 등의 문화적인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선호합니다.

<국내 Social Sector 스타트업 예시>

기업명	설립 연도	대표자	설명
디스에이블드	2016	김현일	발달 장애 예술가의 작품으로 만든 굿즈 판매 및 전시회 개최
포인핸드	2017	이환희	유기견 입양 플랫폼 '포인핸드'
코드스테이츠	2018	김인기	교육 자금 선지원 및 취업 후 일부 상환 제도를 운영하는 개발자 커리어 전환 교육 프로그램
케어닥	2018	박재병	요양시설/노인돌봄 중개 플랫폼 '케어닥'

기업명	설립 연도	대표자	설명
닥터키친	2015	박재연	당뇨, 암환자 등을 위한 맞춤형 건강식단 판매 서비스 '닥터키친'
에누마	2012	이건호, 이수인	디지털 교육을 통해 어린이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앱 '토도수학 ' 등
째깍악어	2016	김희정	워킹맘을 위한 아이돌봄/방문학습 매칭 플랫폼 '째깍악어'
피스컬 노트	2016	팀 황	정부 법안, 규제 등 각종 정책/법률 데이터 플랫폼 '피스컬노트'
마리몬드	2012	윤홍조	인권 프로젝트 기반 소셜 임팩트 디자인 브랜드 '마리몬드'

3

Governance

아직 국내 스타트업은 거버넌스를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거버넌스 지표를 보고 진행되는 투자 유치는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스타트업은 가능한 빠르게 J커브 형태의 성과를 달성 해야 합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과정까지 최대한 효율적으로 진행하게 되고, 대부분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대표자의 의견이 절대적인 힘을 갖습니다. '스타트업은 창업자의 DNA로 구성되어 있다.'는 말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사례를 보면 스타트업에서도 거버넌스를 고려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유니콘이 된 스타트업은 다소 구시대적인 거버넌스 구조를 갖는 경우가 있습니다. 2년 전 나스닥 상장에 실패한 위워크(WeWork)*는 대표자 중심의 거버넌스가 위험하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위워크의 IPO에 있어서 걸림돌은 재무 상태에 비해 너무 높은 기업 가치와 리더십이었습니다. 특히 CEO인 노이만을 추가적인 조사한 결과, 노이만의 주변인이 위워크 일부 지점을 경영하고 있고, 위워크가 임대하는 건물의 일부를 노이만이 개인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위워크는 상장에 실패하고, 1/3 수준으로 급락한 기업 가치로 인해 많은 이해관계자가 피해를 받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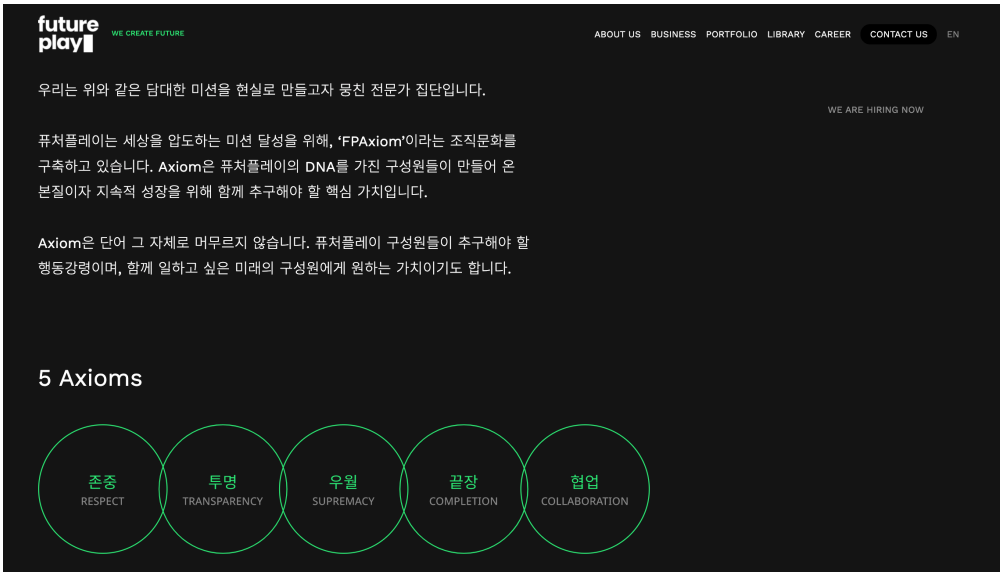
이와 비슷하게, 우버(Uber) 역시 지난 2017년 성 추문 사건 등 각종 구설수에 휩싸인 CEO로 인해 오너리스크를 지게 되었습니다. 우버가 휘청일 때, 경쟁사인 Lift는 차별화에 성공하며 업계의 경쟁 구도 자체가 바뀌기도 했습니다. 이외에도 해외에서는 Theranos, Zenefits** 등 여러 사례를 거치며, 스타트업 사이에서도 거버넌스를 등한시하기 어려운 상황에 되었습니다.

'스타트업' 하면 '좋은 조직 문화'를 쉽게 떠올릴 수 있습니다. 각 기업이 제공하는 핵심 가치에 따라 조직 문화도 각양각색이고, 자신의 조직문화를 정의하고자 노력합니다. 어떻게 일하는지, 어떻게 소통하는지, 무슨 가치를 좇는지 등을 명문화하여 공유합니다.

* "WeWork And The Value Of Effective Governance", Forbes, Sep 2019
** Amy Deen Westbrook, "What to Do About Poor Corporate Governance at Unicorns", Jan 2021

퓨처플레이의 경우, '10년 내 인류의 삶을 바꿀 스타트업들을 지속 가능한 방법으로 만든다.'라는 미션을 기틀 삼아 FP Axion(FuturePlay Axiom)을 세웠습니다. 구체적으로, 서로를 존중하고 투명하게 협업하고, 각자의 영역에서 우월하게 끝장을 보며 일하자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성장하는 스타트업이 그러하듯, 퓨처플레이도 한번 명문화된 조직문화를 영원히 따르지 않습니다. 흘러가고, 향상하고, 커지는 바다 같은 문화를 만들어 지속해서 향상하고 있습니다.

<FuturePlay Axiom>



(출처: futureplay.co)

이러한 스타트업 조직이 가진 장점을 잘 살린다면, 특성에 잘 맞는 거버넌스를 구축할 수 있으리라 기대됩니다. 비록 일반적인 거버넌스 모델을 따라가긴 어렵겠지만, 거버넌스의 핵심인 투명 경영, 공정한 의사결정 구조 등을 고려한다면 더욱 지속 가능하게 성장할 수 있는 스타트업이 될 것입니다.

Epilogue 글을 마치며

"The biggest risk/correlation to equity markets over the next decade has nothing to do with interest rates. It will be carbon tariffs and it will blow up every DCF model of every company in the public markets."

향후 기업가치는 시장 금리가 결정짓지 않을 것이며 기존의 기업가치 평가모델인 현금흐름(DCF) 모델이 유용하지 않을 것이고 탄소관세에 기반하여 기업가치가 산정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Social Capital이라는 실리콘밸리 투자사의 CEO인 Chamath Palihapitiya 가 트위터에 공유한 말입니다. Chamath의 발언만큼 파격적인 변화에 대한 확신을 얻는 시점은 막상 이같은 radical 한 변화와 직접적으로 마주했을 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ESG와 관련된 정책적 변화, 투자 행태의 트렌드, 성과지표의 발전 및 기업들의 사업/기술 개발의 고도화를 살펴본 결과 지금 이 순간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 여부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주식시장이 생겨난 후 시장 논리를 지배해온 밀턴 프리드먼(Milton Friedman)의 주장에 따르면 기업의 단 한 가지 목적은 주주들을 위한 금전적인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ESG에 대한 고찰을 통해 이 같은 이론 또한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단순히 금전적 이익 극대화를 넘어서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정책적 framework 안에서, 투자 유치의 관점에서, 그리고 사업 및 기술 개발의 테두리로서 필수가 되기 시작하는 Tipping Point에 도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퓨처플레이는 임팩트 투자사와는 달리 철저하게 재무적인 관점에서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스타트업에 투자를 하고 육성하고 있습니다. 퓨처플레이가 ESG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 스타트업의 폭발적 성장에 있어서 ESG 요인들이 슈퍼 자양분이 되거나 엄청난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리포트가 스타트업 생태계에서 ESG가 어떻게 작용할 것인지에 대한 고찰의 시작점이었다면 앞으로는 더 많은 글로벌 성공 사례들 및 선구자들에 대한 리서치를 통해 스타트업의 폭발적인 성장을 위한 ESG 적용 방법을 도출하고자 합니다.

End of Document